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 순 이**

본 연구는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음악활동 및 음악지도가 가능할지 모색해보았다. 그리하여 ‘언어, 움직임 및 음악이 통합된 교육’에 원리를 둔 오르프 교수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 제한된 지면(논문)을 통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물 가운데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과정을 제고하려고 한다. 그로써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과 같이 현대의 문화·예술적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아카펠라, 시각장애인 음악교육, 오르프 교수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차 례

I. 서 론

1. 연구목적과 방법
2.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의 진행계획

II. 본 론

1. 연수(워크숍) : 특수 교육 및 오르프 교육 연수
2.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내용

III. 결 론

* 본 연구는 “2008 노인·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연구지원사업”(한국예술진흥원 주관)으로 완료되어 제출된 최종결과보고서(2009년 3월8일자)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 일부사례와 연구과정의 핵심부분을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 춘천교육대학교

I. 서론

경제적 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소득은 점차 높아가고 여가시간은 더욱 늘어나는 오늘날,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교육이 주변의 공기와 물처럼 번져가고 있다. 오랜 동안 대중음악(가요)에만 의존하여 표출되어온 문화·예술적 잠재력은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뮤지컬, 클래식,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번져 나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미디어의 개발과 더불어 한편 대다수의 대중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같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여전히 함께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누구보다도 일반적인 전달체계 및 수단으로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교육환경이 분명 더욱 개선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교육현실에 단지 비판만 일삼기보다는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생각해볼만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장애인 치료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오르프 음악교수법에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눈에 띈다. 처음부터 악기 없이, 오히려 인간의 동심(童心)을 기초로 누구나 손쉽게 자연스럽게—원초적으로(elementarily)—음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오르프 음악교육은 교육대상(피교육자)을 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구나 각자의 처지원초적이며 지니고 있는 예술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제 능력에 따라 음악활동, 곧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오르프 교육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누구보다도 시각(視覺)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악기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들 역시 능히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피교육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되도록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진행을 위한 간단한 계획을 먼저 설정하여 연구 내내 항상 주지하였다.

1.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새로운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은 ① 시각장애인들에게 목소리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예술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다양한 음악활동(신체표현)의 기쁨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되, 그들의 감수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 및 잠재력을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소그룹 단위로 아카펠라 곡을 익히고 또 직접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및 협동심은 물론 창의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④ 악보가 필요 없는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무반주 가창 음악예술을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적용하는 연구방법은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수업을 거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적용시키는 교육방법으로 ‘오르프 교수법’과 ‘무반주 아카펠라 음악’의 특성 및 기본정신을 숙지한 교사가 필요했기에,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정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① 기초적으로 오르프의 음악원리 및 정신은 본 연구의 토대 및 기본방향을 숙지한다. ② 연구수업을 실시해야 할 연구원은 오르프 음악교육의 지도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갖는다. ③ 일반인 대상 교육방법에서부터 장애인(특수)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태도 및 지도방법을 터득하도록 학습한다. ④ 시각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아카펠라 학습지도안 초안을 작성하여 수업모델을 모색한다. 이 때 실제 수업을 앞두고 지도안을 작성하는 만큼, 워크북 및 교보재도 함께 준비한다. ⑤ 시각장애인의 일반적 신체조건 및 활동가능성을 살피고, 교육상황에 적합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규합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⑥ 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학습능력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¹⁾ ⑦ 차시별 수업 후 녹화된 수업내용(비디오)을 토대로 적합한 지도방식 및 학습지도안을 수정 및 보완한다. ⑧ 각 학급별 1학기 15차시 수업시간을 기본으로 학습지도안을 마련한다. 그로써 본 연구의 결과물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⑨ 공개 <발표회>를 마련하여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는다.²⁾

2.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의 진행계획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의 네 가지 주안점을 따라 살펴보고 그때마다 요점을 정리해보았다.

예를 들어 ① 가창 교육이 장애인에게 인성과 음악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 - 장애인들 중에는 놀랍게도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황미주, 2008). 남달리 음악적 재능을 지닌 장애인들의 경우 예술 교육에 장점을 갖는다. 최근 한 연구자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창교육을 지도할 때, 오르프 음악교할 이 제시하는 ‘신체와 소리 표현’(접근법)이 어떤 점에서 보다 더 유의하고 또 현실적으로 유용한 지에 대해 잘 밝혀주고 있다(박미경, 2002).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간의 심신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치료으로 가도 음악이 어떤 점에서 유용한 지를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오르프 교할 은 이미 다른 음악교할 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그 탁월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심간적이나심신체적으로 발달장애

1) 실제로 본 연구는 2개 학교(여주 라파엘의 집; 강원 명진학교)의 학급(4개 반)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 <공개 발표회>를 춘천 명진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상기 두 학교의 4개반(여주 라파엘의 집 피교육자들은 전용버스로 이동하여 명진학교에 함께 모였음)은 물론 일반인(가족과 친지 및 교사 등)도 초대하였다. <발표회> 참석자들에게 설문지 형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물이 향후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정리하였다.

를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성인들 심지어 활동이 점차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개별적인 피교육자를 지도하든 그룹을 대상으로 지도하든 상기 오르프 음악치료 방법이 갖는 장점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이상조, 2007).

② 장애인의 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의 경우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한 연구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음악전공자 실태 분석을 통해 그런 의문을 불식시킬 만한 자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황선경, 2007). 또한 시각장애 12개 학교의 교사 12명과 중고생 학생 200명의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존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수업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열의가 남 못지않으나, 현실적으로 그때마다 구비되지 못한 점자악보와 기타 교·보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전한다(이은옥, 2005). 이는 분명 장애인을 위한 교·보재 마련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잘 입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③ 합창이나 아카펠라 가창교육이 음악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경우 - 한 연구자는 초등학교 합창단원 70여 명과 비합창단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악적성검사(한국인표준)>를 실시한 검사를 서로 비교한 결과 리듬과 가락에 대해 합창단원들이 더 높은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꾸준히 참여한 단원일수록 다양한 측면에서 음악적 재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다(이영미, 2007).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4명의 소수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10차에 걸쳐 실시하고, 각자의 음정과 리듬 변별력이 향상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전하거나 혹은 리듬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전한다(김정아, 2006).

④ 합창이나 아카펠라 가창교육이 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의 경우 - 합창단 안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협력하여 이뤄지는 음악활동은 분명 협동심을 길러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그래서 한 연구자는 학교 합창단에 가입한 학생과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인성을 비교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고(이윤미, 1998), 또 다른 연구자는 아예 인성변화를 목적으로 합창지

도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김숙조, 2007).

이상으로 국내 및 국외 관련 연구논문 및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아쉽게도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선행연구 및 모범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교육구상에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그치고,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본 연구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그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연구진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연구원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예컨대 ① 각 구성원에게 정한 역할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책임연구자 1명, 공동연구자 1명, 연구보조원 5명 및 보조원 2명으로 구성한다(총 9명). 책임연구자는 음악교육 전문가로서, 오르프 접근법의 내용과 기법을 시각장애인에게 알맞은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공동연구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처지와 교육적 잠재성을 안내하고, 가창지도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수업 전담교사 3명과 연구보조원 2명은 자체 연수를 통해 오르프 음악교수법과 특수교육을 위한 사전지식을 재정리하여,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시범수업 녹화포함) 및 정리, 인쇄, 회의운영 및 작업 보조 등 연구에 도움을 주는 일을 수행한다. 보조원은 교육대상자(시각장애인)들을 직접 지도하고 보살피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인력으로서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교육대상자 관리 및 환경조성을 도와 줄 현장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피교육자 대상의 범위는 언어, 움직임 및 음악이 통합되는 놀이 형태의 아카펠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원칙적으로 어느 복지시설 혹은 특수학교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여러 방편으로 문의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상기 프로그램 개발의 적용 및 활용계획에 수업과 평가(공연발표 및 시사회) 모두 가능했던 두 곳(시각장애인 학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할 수 있었다.

(가) 교육복지 시설 기관: 여주 라파엘의 집(유치부에서 성인까지)

<http://www.raphael1004.co.kr> / 교육대상자 : 경증중복장애인 성인 그룹

(나) 특수학교: 강원 명진학교(유치부에서 고교생까지)

<http://www.myoungjin.sc.kr> / 교육대상자 : 경증중복장애인 중고등부 그룹; 중증중복장애인 중고등부 그룹 ; 일반시각장애인 중고등부 중창그룹

또한 ③ 연구 추진단계 및 추진일정은 이미 본 연구가 공모사업(“2008 노인·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던 까닭에, 주최측(한국예술진흥원 주관)이 정한 사업일정을 따랐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였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하였다. 사실상 연구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촉박한 기간이었다.

<표 1> 연구 추진단계

구 분	세 부 내 용
특수 교육 연수	시각장애인의 이해, 교육접근법
오르프 교육 연수	몸과 음악
	언어와 리듬
	호흡과 음악
수업적용 및 모니터	교육 대상 3그룹, 10시간씩 수업
평가회	영상 모니터, 수업내용 평가회
발표회	교육활동 결과 발표회
결과보고서 작성	워크숍, 자체 보고회
지도안 작성	활동 내용 정리
	차시별 지도안 작성

Ⅱ. 본 론

1. 연수(워크숍) : 특수 교육 및 오르프 교육 연수

앞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전원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야 할 중요한 교육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했던 까닭에, 집중교육(연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 실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익혔던 특수 교육 및 오르프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1) 수업 대상자의 사회성숙도 검사와 특징

연구수업은 각 그룹별로 상당히 개인차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각 학급이나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대상의 생활 경험과 인지적 학습 간에는 대상인의 장애가 중도(重度), 중복(重複)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급반이나 시설에서의 생활 리듬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여광응, 추연구, 박현옥, 2003), 또 음악이라는 단체적인 합창(아카펠라)활동에서 시공간의 배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대상인의 현재연령(CA)과 사회적 사회연령(SA)을 고려할 수 있는 김승국과 김옥기(1995)가 표준화한 사회성숙도검사³⁾를 사용하였고, 실시방법은 교육대상자를 잘 아는 담당교사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사회연령(SA) : 사회연령 환산표에서 총점에 해당하는 SA 난의 숫자를 나타낸다.
사회지수(SQ) : SA-사회연령, CA-생활연령

$$SQ = \frac{SA}{CA} \times 100$$

① 00학교 <중증중복장애인반(중고등부 총 8명, 사회연령 평균 3세)> : 사람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중 고등학생 중에서 가장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사회연령의 개인차는 비교적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집단이다. 남학생이 5, 여학생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숙도 결과 생활연령(CA)의 평균나이는 20세이고, 최고나이 27세에서 17세의 최저 나이로 구성되고, 사회연령(SA)은 평균 3세 4개월 정도이며, 사회지수(SQ)는 평균 18.40으로 나타나 사회성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으로 드러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② 000의 집 <경증중복장애인반(성인부 총 16명, 사회연령 평균 4세)> : 당초 선정인원은 17명이었으나 연구수업에 실제 참가는 16명이고, 남 12명, 여 4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시설에서 요보호를 필요로 하나, 생활연령의 증가로 기초생활의 기능이 확립되어있어 신변처리는 가능하나 사회관계, 대인관계 등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사회성숙도 결과 생활연령(CA)의 평균나이는 33세이고 최고나이 63세에서 22세의 최저 나이로 구성되고, 사회연령(SA)은 평균 4세 3개월 정도이며, 사회지수(SQ)는 평균 13.08로 나타나 경증 중복 장애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③ 00학교 <경증중복장애인반(중고등부 총 13명, 사회연령 평균 6세)> : 성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13명으로 구성된 학반으로 남 9명, 여 4명으로 계 13명이다. 이 학반의 학생들은 사회 연령으로 볼 때, 초등학교 입문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있고,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많아 학교와 기숙사 시설 등에는 익숙하고 학교생활도 즐거운 학생들이다.

사회성숙도 결과 생활연령(CA)의 평균나이는 22세 5개월이고, 최고나이 29세에서 16세의 최저 나이로 구성되고, 사회연령(SA)은 평균 6세 7개월 정도이며, 사회지수(SQ)는 평균 30.23으로 나타나 반복 숙달의 경험으로 기본적인 생활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학교 졸업 후 약간의 지원이 있으면,

직업생활도 가능할 것이다.

④ 00학교 <일반시각장애인반(중고등부, 총 12명, 사회연령 평균 16세)>
: 이 학교에서 음악활동으로 중창반 활동과 악대부 활동을 하는 활동적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 면에서도 실제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도 있고, 성악가에 이를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생도 포함되어있다. 여학생 9명, 남학생 3명으로 12명이 참여한 집단으로 가창활동과 음률에 리듬을 살릴 수 있고, 노래를 무척 즐기는 학생들이다.

사회성숙도 결과 생활연령(CA)의 평균나이는 16세 1개월이고, 최고나이 18세에서 13세의 최저 나이로 구성되고, 사회연령(SA)은 평균 16세 0개월 정도이며, 사회지수(SQ)는 평균 99.00으로 나타나 일반학생의 정상적 IQ와 비슷한 집단의 학생들이다.

2)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할 오르프-술베르크의 내용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음악치료학 교수이자 오르프 음악치료 연구가로서 카린 슈마허(Schumacher, 1999)는 자신의 논문 “음악적 사회교육 및 전인 교육 그리고 음악치료를 위한 오르프-술베르크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감각능력을 동원한 경험과 놀이식 교육은 무엇보다도 그렇듯 세상 및 동료인간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 특히 청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음악치료를 위해 특별히 즉흥연주를 강조하는 헤기(Hegi, 1997, p. 79)는 한 개인의 목소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자신의 목소리는 자신의 귀에 가까이 대고 들을 경우 또 다른 소리로 들리게 되듯이 다른 사람의 소리 역시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볼프가르트(Wolfgang, 1975)는 자신의 책 “오르프 술베르크와 음악치료”에서 치료적인 구성요소로서 원초적인 음악과 움직임이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교육대상자 중 한 그룹인 중증중복장애인의 생활연령이 4세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해 플랄과 코흐 템핑

(Plahl & Koch-Temming, 2008, p. 179)은 유아대상의 음악치료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래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이자 활동내용이라고 강조한다. 빌드(Wild, 1971, pp. 180-189)는 자신의 논문에서 시간장애인들을 위해 오르프-슐베르크의 리듬교육에 기반을 둔 교육을 실시한 내용으로 활동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 외에도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또한 안무에 맞춰 춤도 출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치료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르프-슐베르크의 철학에 기초한 다양한 놀이 활동은 사실 일반인과 장애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단지 상대가 누구지를 좀 더 분명히 의식하고, 최대한 상황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적합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모범적인 모델로서 초석 역할을 한 <비디오 자료(3개)>를 기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악대학교 오르프연구소의 학생들과 교수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동영상 자료로서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된 오르프 연구소 활동 제목과 내용

제목	내용
움직임놀이와 놀이움직임 Bewegungsspiel - Spielbewegung (1990)	- 트램펄린 위에서 몸의 중심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 경험을 소리와 노래로 연결하기 - 중심이 이동되는 움직임을 따라하기 - 자연스러운 팔의 움직임으로 노래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 손바닥 위에 풍선을 올려놓고 균형을 조절하며 목소리에 적절한 긴장과 이완으로 소리내기 - 흔들의자나 짐볼을 활용하여 움직이면서 소리내기 - 평행봉 위에서 몸의 중심이 흔들릴 때 보조자의 도움을 받으며 노래 부르기 - 긴장과 이완을 고무줄 끈으로 경험하기 - 둘이서 반대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서 온몸을 활용하여 소리를 내는 활동

제목	내용
말하기교육과 언어형성 Sprecherziehung und Sprachgestaltung (1988)	- 바람으로 탁구공을 들어 올리는 기구를 활용한 호흡 연습하기 - 컵에 물을 넣고 빨대로 방울 만들어 컵의 종류에 따른 소리의 변화 느껴보기 - 균형을 잡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말하거나 노래하기
호흡, 목소리, 움직임 Atem-Stimme- Bewegung (1990)	- 크리스털 컵의 주위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들리는 소리에 맞춰 그림그리기 - 어떤 음의 흐름을 듣고 칠판에 선 그려보기 - 고무공을 가지고 바닥에 튕겨 탄력 느끼기

본 연구의 수업 대상자의 사회연령에 맞는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나름대로의 가상 수업을 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원들의 일부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체험을 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토의를 거쳐 나온 활동들은 소리와 몸으로 인사하기, 이름으로 말리듬 인사하기, 동작을 통한 호흡연습하기, 특정한 노랫말에 신체표현하기, 소리를 듣고 비이동 동작으로 반응하기, 두 명이 등을 맞대고 소리 내어 서로의 울림을 느껴보기, 음의 높낮이와 길이 알기, 이동 동작을 포함한 소리 양탄자 활동하기, 타악기 앙상블, 말과 움직임 관계 알기, 한 명의 말리듬으로 세 명의 무용수 만들기, 즉흥으로 말 지어 론도 형식으로 연주하기, 과열음과 치열음 등으로 만드는 말리듬 앙상블 연주하기, 가족 구성원을 표현하는 역할놀이를 통한 웃음소리 앙상블 연주하기, 노래로 말하기 놀이하기, 날씨를 흉내 낸 말로 다양한 반주를 만들기 등이다.

2.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내용

그 동안 준비작업과 선정된 4개 반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연

구수업을 바탕으로 나아가 ‘공개 발표회’를 거쳐 수업모델을 검증받고, 일부는 수정과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본격적으로 새로운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원리와 지침’을 정하여 다채로운 음악수업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울동 및 춤)이 음악수업과 함께 적절히 배치되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하여 그 결과물로서 다음 아래(본문 12쪽 이하)에 소개하는 ‘내용 체계표’, ‘차시별 교수·학습 모델 수업안’, ‘세부 연간 지도 계획서’ 그리고 ‘(교육대상자) 맞춤형 예시 차시별 교육지도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지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5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악곡을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음악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본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원리인 만큼 각 영역별 학습내용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다시 말해 아카펠라는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몸의 긴장을 풀고 기꺼이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① 첫 번째 주제는 “인사하기”다. 특히 ‘합창’은 함께 부르는 동료(친구)와의 호흡이 중요한 이상 서로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이 선결과제다. 이에 일상적인 표현(‘안녕’등)과 외국어 표현(‘헬로’ 등)을 제목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 마음으로 다가서도록 이끈다. ② 두 번째 주제는 “소리 느끼기”다. 소리(음)와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각종 다양한 소리를 듣고, 평가하고, 스스로 질러보면서 소리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③ 세 번째 주제는 “말을 이용하여 음악만들기”다. 소리 가운데 ‘말(언어)’은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별 짓는 특별한 속성이다. 말로써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바깥세상에 알리고 타인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제대로 말하기를 함께 가르침으로써 이루어야 할 인성교육은 여기 음악교육에도 예외일 수 없다. 묻고 답하기 학습활동은 그런 소통의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④ 네 번째 주제는 “신체표

현하며 노래부르기”다. 때때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순간 ‘신체로 표현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크다. 몸을 악기로 이해하는 일부터 간단한 동작으로 자신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성숙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모든 요구가 그때마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속내를 적절히 표현하는 일은 인간자신을 진정시키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복잡한 음악요소(계이름)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보다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끝으로 ⑤ 다섯 번째 주제는 “화음 느끼며 노래부르기”다.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저마다의 소리(성부)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게 되면, 성부를 나누어 2부 혹은 3부로 합창 및 돌림노래를 시도할 수 있다. 음악활동의 기쁨도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영역은 그렇듯 꾸준히 확장되어야 한다. 이 같은 구성원리는 아래의 <내용 체계표>에서 5개의 “주제”를 가리킨다.

2) 내용 체계표

아래의 <표 3>의 내용 체계표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을 5개의 주제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한 수업내용이다. 초보적인 수준에서 점차 전문적인 음악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고자 영역별로 나눈 것이다.

<표 3> 교육 프로그램 내용 체계표

주 제	제 목	주 요 활 동
인사하기 (인사와 관련된 여러 활동으로 마음열기)	안녕! 여러분!	- 몸의 일부분을 접촉하며 인사하기 -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인사하기 - ‘안녕’ 노래 부르기
	헬로! 봉쥬르~	- 외국어로 인사하기 - 동물소리로 인사하기 -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 부르기
소리 느끼기 (몸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맛있는 숨	- 요가를 활용한 움직이기 - 몸을 움직이며 호흡 연습하기 - 도구를 활용한 호흡 연습하기

주 제	제 목	주 요 활 동
느끼고 움직이기)		- ‘보글송’ 노래 부르기
	춤추는 노랫말	- 동시를 듣고 신체표현하기 - 노래 가사를 듣고 신체표현하기 - ‘숨사탕’ 노래 부르기
	Go! Stop!	- 일정리듬을 듣고 신체표현하기 - 재미있는 소리를 듣고 신체표현하기 - 특정한 상황 정하여 들을 수 있는 소리 표현하기
	엘리베이터 탈까요?	- 음의 길이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 음의 높낮이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 고무줄 가지고 기차 타보기 - ‘찾길 옆’ 노래 부르기
	소리 양탄자	- 풍선을 손바닥위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한음을 소리 내며 걷기 - ‘도’ 음을 지속적으로 내며 걷기 - ‘도’ 음의 반주에 맞춰 「에델바이스」 노래 부르기
말을 이용하여 음악 만들기 (언어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음악 창작활동 하기)	‘두 두비’	- 즉흥으로 말리듬 지어 묻고 답하기 - ‘두 두비’ 노래 부르기 - 즉흥으로 말리듬 지어 론도 형식으로 연주하기
	칙칙폭폭	- 다양한 기차소리를 치열음, 파열음으로 표현하기 - 치열음, 파열음으로 리듬꼴 만들기 - ‘기차를 타고’ 노래 부르기 배우기
	나도 작곡가	- 교사와 학생이 Q-A로 대화하기 - 교사는 즉흥적으로 선율을 넣어 질문하기 - 교사와 학생이 선율을 넣어 Q-A로 대화하기
	똑같아요	- 주어진 날씨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 날씨에 어울리도록 흉내 내는 말하기 - 날씨에 어울리는 말로 일정한 리듬꼴 만들어 반주 만 들기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도구와 신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노래 부르기)	내 몸이 악기?	- 몸에서 나는 소리 알아보기 - 몸에서 나는 소리로 일정한 리듬꼴 만들기 - 신체 악기로 앙상블 만들기
	‘도’ 를 찾아서!	- 오른쪽 사람에게 콩 주머니 전달하기 - ‘악어떼’ 노래 부르기 - 술래가 내는 으름음 반주에 맞춰 「악어떼」 노래 부 르기
	홀라후프 탭댄스	- 교사와 학생이 홀라후프를 가지고 활동하기

주 제	제 목	주 요 활 동
		- ‘두에두에’ 노래 부르기 - 홀라후프를 바닥에 놓고 한발을 안팎으로 옮기며 노래하기
	네모세모동그라미	- 교사와 함께 손뼉을 치기 - 교사와 함께 일정박에 맞춰 신체 두드리기 - 론도형식에 맞춰 신체 두드려 소리내기
	손가락 음계	- 손가락에 계이름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이름 만들기 - 이름을 부르고 손가락 찾는 놀이하기 - ‘비행기’ 노래 부르며 손가락 놀이하기
화음 느끼며 노래 부르기 (주선율과 어울리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성부로 노래 부르기)	돌리고 돌리고	- ‘두 두비’ 노래 부르기 - 두개의 원을 안팎으로 만들어 노래하며 돌기 - 2팀이 나뉘어 학생들끼리 돌림노래로 부르기
	화음존	- 1도, 5도 화음 소리내기 - 교사의 신호에 맞춰 화음 만들기 -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노래 부르며 화음 반주하기
	숨겨진 소리를 찾아서	- 아카펠라 곡 감상하기 - 멜로디 부르기 - 멜로디가 아닌 다른 소리 찾아보기 - 다른 소리 찾아 함께 불러보기
	카논의 비밀!	- ‘송아지’ 노래를 2부로 돌림노래 하기 - ‘고향의 봄’ 노래를 3부로 돌림노래 하기 - ‘고향의 봄’ 노래를 돌림노래로 부르며 교사의 신호에 맞춰 멈추기
	뚝뚝뚝	- ‘The lion sleeps tonight’의 주선율 배우기 - 움직이며 곡의 다른 파트 배우기 - 함께 아카펠라로 노래 부르기

3)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모형은 각 차시별(주제별) 학습지도안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일정주제에 대한 자세한 학습내용은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안내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교육 대상은 일반시각장애인반, 경증중복장애인반(성인/중고등부), 중증중복장애인반으로

구분하였다고 앞서 말했다. 각 교육 대상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인/상세한 수업 지도안이 개발되었으나, 이 글에서부)지면상 <중증중복장애인반>을 위한 “수업안”만을 일례로 소개한다.⁴⁾ 이 수업은 실제 한 학생이 우연히 소리를 낸 하나의 음에서 출발하였다. 그 음을 계명으로 부르게 하고, 처음의 불안한 음정을 교정해 주면서, 함께 있던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즉석에서 화음인/대선율을 넣어 완성한 수업형태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노래부르기를 위해 미리 준비한 원안이 있부)것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의 음을 모색하도록 한 다음, 점차 음을 부가함으로써 즉흥적으로 노래부르기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다.

다음의 <표 4>는 중증중복장애인반을 위한 15주차의 주제 및 주요활동 내용이고, <표 5>는 활동제목에 따른 모두에게 적용될 모델지도안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당 장애에 알맞게 세부 지도안을 차시별로 완성시킬 수 있다.

<표 4> 중증중복장애인반을 위한 15차시의 주제 및 주요활동

주차	주 제	제 목	주 요 활 동
15	화음 느끼며 노래 부르기 (주선율과 어울리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성부로 노래부르기)	숨겨진 소리를 찾아서	• 계이름 소리 듣고 따라서 소리 내보기 • 계이름 스케일을 부르기 • 손을 맞잡고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기 • 반복되는 계이름을 소리 내고 즉흥적으로 대선율을 소리 내어 화음 느껴보기

4) 여기에 소개하는 <중증중복(시각)장애인반>은 나머지 3개 반에 비해 시각장애 정도가 높고 다른 장애마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까닭에 그에 적합한 음악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한층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 <중증중복장애인반>의 수업안을 잘 살펴본다면, 나머지 다른 반의 경우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에, 이 수업모델에 대한 소개로 다른 반들에 대한 수업안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표 5> 15차시의 모델지도안

활동제목	숨겨진 소리를 찾아서
활동목적	다성부 노래의 듣고 구분하는 능력 신장
준비물	없음
활동내용	• 몸 깨우기 운동을 한다. (숨쉬기, 목운동, 손바닥 비비기) • 조용히 아카펠라 음악을 듣게 하며 곡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감상한 곡에 맞는 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몸짓으로 만들어 본다. • 몸짓과 함께 음악에 맞춰 움직인다. • 경청한 곡을 교사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학생들이 따라 부른다. • 주선율 외의 다른 음들을 찾아보고 따라 불러 본다. • 노래를 들으며 “도”, “미”와 같은 음을 찾아낸다. • 그룹을 나눠 몸짓을 하며 주선율을 부르거나, 들었던 다른 음을 소리 낸다.

4) 맞춤형 차시별 교육지도안: <중증중복장애인반>을 위한 15차시 수업

교육대상자 별로 마련한 <맞춤형 예시 차시별 교육지도안>은 실제적인 교육현장에서 그때마다 새롭게 구성되거나 선택된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앞선 수업모델을 근간으로 삼고 세부 연간 지도 계획서에서 1학기 혹은 2학기를 단위로 전체적인 교수학습 체계를 고려하면서 각 차시별 수업내용으로 적절한 주제 및 소재를 선정하여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기 <15차시의 주제 및 주요활동>과 <15차시 모델지도안>을 토대로 마련한 수업(사례)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활동제목 : 숨겨진 소리를 찾아서》

- (1) 활동의 목적 : 이 활동은 중증중복시각장애인의 음감형성을 위해 한 음씩 소리 내도록 하다가 점차 음계의 순서대로 노래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나아가 이 음계를 주선율로 간주하여 학생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교사는 즉흥으로 화음을 넣어주어 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중증중복시각장애인이 반복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특성을 살려 음계를 반복적으로 소리

를 낼 수 있고 교사가 들려주는 화음을 경험하고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신체활동을 유연하게 한다.

(2) 수업목표 :

- 계이름을 음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
- 계이름에 맞춘 화음의 즉흥연주를 듣고 신체로 표현할 수 있다
- 음계의 흐름을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준비물 : 홀라후프

(4) 활동순서

- ① 교사와 학생은 원형으로 앉는다. 교사는 “도” 음을 들려주고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음정이 불안정할 때는 학생 한 사람씩 소리를 듣고 따라 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사의 소리를 듣고 학생들은 다른 계이름을 소리 낸다.

※ 유의점

- 중증중복시각장애인은 개인마다의 수준의 폭이 넓음으로 학생의 능력에 따라 소리를 내는 차이를 다르게 둔다.
- 계이름을 여덟 가지 음을 다 소리 내지 못해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교사는 가능한 학생들이 정확한 음정 찾아 소리 낼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 ② 교사는 앞에서 계이름 하나씩 소리 낸 후, 음계로 이어서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들려준다. 학생들이 함께 소리 내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준다.

<악보 1> 음계 훈련



- ③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다. 교사는 학생 두 명이 홀라후프 하나를 잡고 만져보며 탐색하도록 한다.

예) 홀라후프 잡고 옆으로 흔들어보기, 홀라후프 잡고 당겨보기, 홀라후프 잡고 원형으로 돌기, 두 사람이 마주보며 홀라후프를 잡고 발까지 내리고 머리위로 천천히 올려 보고 다시 발끝으로 내려 본다. 교사와 학생 또는 스스로 활동이 가능한 학생끼리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해본다.

※ 유의점

- 교사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홀라후프의 움직임을 설명해준다.

예) “발에서 무릎까지 올라오고 또 배꼽까지 올라가요.”

- ④ 교사와 학생은 음계를 계명으로 노래하며, 홀라후프를 사용하여 소리의 움직임처럼 몸을 움직여 본다.

※ 유의점

- 소리 내는 속도에 맞춰 홀라후프를 천천히 움직이도록 주의한다.

교사와 학생이 음계를 계명으로 소리 내며 움직일 때 보조교사는 옆에서 1도 화음(도미솔)을 소리 내주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화음을 느끼도록 한다.

<악보 2> 중증중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레미파솔”

교사1

교사2

교사3

학생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5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 ⑤ 교사와 학생이 각각 두 사람씩 홀라후프를 잡고 교실을 걸어가며 음계를 계명으로 노래한다. 보조교사는 화음을 소리 내고 또 다른 보조교사는 대선율을 즉흥적으로 불러준다.

※ 유의점

- 음계의 계명을 혼자서 지속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학생은 교사가 옆에서 함께 불러준다.
- 학생의 음계의 계명소리가 묻히지 있도록 보조교사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화음과 대선율 소리가 너무 크게 않도록 주의를 준다.
- 학생들은 걷다가 잠시 멈추기도 하며 다시 걷는다.

<악보 3> 중증중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레미파솔 5성부”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학생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3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5) 평가 관점

- ① 계이름을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 낼 수 있는가?
- ② 음계의 흐름에 맞는 움직임 홀라후프로 표현할 수 있는가?

Ⅲ. 결 론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종료된 이후 현재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발달장애나 ADHD의 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교육과 아카펠라에 대한 관심이 사회 및 대중들로부터 증폭되고 있기에 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에 관한 연구논문은 매우 부족하다. 그 와중에도 종종 발견되는 논문들은 가창이 아니라 기악중심 연구가 대부분이고, 몇 안 되는 가창에 관한 논문은 또한 거의 모두 합창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비록 본 연구에 미비한 점이 많고 여전히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버린 이웃, 나아가 그들 역시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현실적 음악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성숙한 사회적 움직임을 따라 처음 시도해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다. 아카펠라는 악기가 필요 없는 음악활동의 하나로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악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아카펠라는 음감에 민감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음악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조직은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등 언어장애가 수반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가창지도의 주요한 요소인 발음 및 발성을 통한 언어 치료적 접근방법도 계속 요청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 기회로 계속되는 후속연구가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및 연령층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나아가 또 다른 장르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으면 한다.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서 각 현장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교육자의 적성과 조건에 보다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승국, 김옥기 (1995).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여광응, 추연구, 박현옥 (2003). *경도 정신지체아 교육*. 서울: 양서원.
- 김숙조 (2007). *청소년들의 인성변화를 위한 합창지도 모형 개발*.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2).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 가창 교육을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조 (2007). *발달장애인과 음악 : 음악치료, 치료를 위한 음악 만들기, 음악적 활동*.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07). *초등학교 합창단원과 일반 학생들의 음악성 비교 연구 : 4,5,6학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옥 (2005). *전국 시각장애학교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 음악수업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주 (2008). *장애인의 음악영재성 발달과정*.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경 (2007). *시각장애 음악전공자 실태 분석*.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egi F. (1997). *Improvisation und Musiktherapie*. Möglichkeiten und Wirkungen von freier Musik, Paderborn: Junfermann Verlag.
- Plahl C. & Koch-Temming H.(Hrsg) (2008). *Musiktherapie mit Kindern*. Grundlagen-Methoden-Praxisfelder(2. Ausgabe), Bern: Huber.
- Wild K. (1971). Rhythmische Erziehung in der Blindenschule. In Wolfgart H.(Hrsg.), *Das Orff-Schulwerk im Dienste der Erziehung und Therapie behinderter Kinder* (pp. 180-189), Berlin- Charlottenburg: Marhold.
- Wolfgart H.(Hrsg.) (1975). *Orff-Schulwerk und Therapie*. Therapeutische

Komponenten in der elementaren Musik- und Bewegungserziehung,
Berlin: Marhold.

Schmacher, K. (1999), <http://bidok.uibk.ac.at/library/schumacher-orff>.

Video[=시청각 자료]

Sprecherziehung und Sprachgestaltung, Leitung: Christine Schönherr,
Universität Mozarteum Abt. Kl. Orff-Institut Musik- u.
Bewegungs- erziehung(1988).

Atem-Stimme-Bewegung, Idee u. Projektleitung: Judith Barta,
Universität Mozarteum Abt. Kl. Orff-Institut Musik- u.
Bewegungserziehung (1990).

Bewegungsspiel-Spielbewegung, Universität Mozarteum Abt. Kl. Orff-
Institut Musik- u. Bewegungserziehung(1990).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appella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Suni Cho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 program in A-cappella vocal education as part of cultural arts programs for the visually challenged. Based on the outstanding hearing ability of visually challenged people, the program was to develop their musical sensitivity and offer them opportunities for musical activities so as to enjoy sounds on their own in the long run. In particular, A-cappella which is sung without any musical instruments, helps not only improve an individual's musical talent, but als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society) by leading people to learn how to live in harmony with each other and care for one another.

Furthermore, the aforementioned A-cappella vocal education is expected to produce more effective educational results, being closely connected to the Orff teaching method whose basic principles are from the integrated education of language, movement and music. As today's music education should go beyond simple voice training and vocal education and embrace holistic education that encompasses physical activity, language learning and related mental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be equipped with features of an integrated education. Especially for the visually challenged that have few opportunities for movements,

this kind of integrated experience is highly required. Therefore, as part of preparatory activities, every researcher taking part in the present study received training in the Orff teaching method while being advised by experts in special education in order to raise his understanding of the visually challenged, and hence they tried to develop a more suitable educational program for them within a limited time frame.

When professional A-cappella instructors who can care for others and open up themselves are produced and when the visually challenged can actively take part in physical and musical activities, it is my belief that our society will be more beautiful. With this A-cappella education program as a start,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arts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subsequent research, which can have disabled people realize that they are not lacking or incompetent, but they can explore their talent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Key Words : A-Cappella, Music education for visual impairments, Orff-Schulwerk idea,
Education as part of cultural arts, Development of A-Cappella program

투고일: 9월 28일, 심사(수정): 11월 12일(12월 7일), 게재확정일: 12월12일